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C시 지역의 간호대학생 1.2학년 16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설명력은 44.6%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에서는 학년, 대학생생활만족도, 성적, 경제상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여 자신감 및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형성과 사회적지지를 위한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맞춤형 중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collected data from 164 nursing students in their first and second years in C city areas in November and December 2023.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using th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in SPSS/WIN 20.0. Findings showed that grade,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ed nursing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4.6%. Furthermore, grade, college life satisfaction, marks, and economic status influenced relationships with self-directed learning. The study shows environments that increase nursing student self-confidence and immersion in studies by enhancing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nd a tailored intervention strategy would promote nursing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Keywords :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Jong Im Kim(Jungwon Univer)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April 11, 2024

Accepted July 5, 2024

Revised May 13, 2024

Published July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함께 대학도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인재 양성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1]. 사회와 대학의 변화는 학생들 간의 경쟁과 학업에 대한 압박감도 높아지고[2] 능동적으로 학업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생들은 입학 전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나가지 못한 상태로 대학 진학을 하면서, 대학생 활 및 학업 부적응 등으로 중도탈락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3]. 자기주도적 학습은 대학수업에서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학업관리 능력과 자신감 향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부족은 대학생활 적응, 진로, 학업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4]. 간호대학생도 마찬가지로 간호 전공분야의 새로운 지식의 함양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향후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과정으로[9], 대학생활 동안 전공교과, 대인관계, 사회적 이미지 등을 통해 형성되며, 적성과 흥미에도 영향을 받는다[10].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과 수업이나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1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만족도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각각의 변수와의 관련정도를 파악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균형을 유지하거나 상황에 대해 이겨낼 수 있는 내적 능력으로[12], 스트레스나 불안을 이겨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3],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14]. 이에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및 만족도에도 작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한 타인의 지원, 도움, 격려 형태의 인적, 물적 사회적 상호관계로[15], 친구, 선배, 교수 등 대학환경을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16],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17],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또한, 사회적지지가 높은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되는 것으로[19]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자기주도적 학습과 사회적지지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각각의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자신의 학습요구를 스스로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5], 간호대학생에게도 간호학에 대한 전문적인 성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으로, 임상현장에도 문제를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6].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며[7], 학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8]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면서,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필요한 역량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4], 셀프리더십[19], 대학생활만족도, 학업스트레스, 학습동기[7,8], 전공만족도[20]등과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와의 관련성 및 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전 학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것에 비해 대학생활 초기단계인 1.2학년의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을 밝혀 단계적이며, 체계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전공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함께 간호대학 1.2학년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를 구명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자기주도학습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 지역 간호학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 학생, 연구기간 동안 결석자, 외국 유학생,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보조자가 해당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표본크기는 G power 3.1 version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를 구하기 위해 선행연구[19]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인 .15 크기를 근거로 회귀분석(예상독립 변수 8개)으로 검증력을 산출하였을 때 160명이 적정수준이었다. 설문지는 190부를 배포하였고, 그중 답변을 모두 같이 표시하였거나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26부를 제외한 16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 도구는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자기주도적 학습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학년, 성적, 대학생활 만족도, 동아리활동, 학교생활 어려움,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측정하기 위해서 Lee 등[21]이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주도 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 측정도구는 하위 영역으로 학습계획 15 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평가 10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많이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 Lee 등 [21] 연구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였으며, 하위 영역별로 학습계획 .87, 학습실행 .87, 학습평가 .89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Ha [9]가 개발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Lee [22]가 수정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으로 일반 만족요인 6개 문항, 인식 만족요인 6개 문항, 교과 만족요인 3개 문항, 교수, 학생간의 관계 만족요인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Ha [9]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Lee [22]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일반만족 .87, 인식만족 .88, 관계만족 .90이었다.

2.3.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Park [2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정서적지지 7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7$ 이었고, 하위 영역별 정서적지지 .96, 정보적지지 .96, 물리적지지 .95, 평가적지지 .95이었다.

2.3.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Shin 등[24]이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을 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 도구를 검토하여 대학수에 맞는 문항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78$ 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으로 통제성 9개 문항, 긍정성 9개 문항, 사회성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통제성 .87, 긍정성 .88, 사회성 .87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자기주도적 학습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분석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동아리활동, 학교생활 어려움,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38명(23.2%), 여자가 126명(76.8%)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79명(48.2%), 2학년 85명(51.8%)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군이 54명(32.9%), '보통' 96명(58.5%), '불만족한다' 14명(8.6%)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이 101명(61.5%)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권' 37명(22.6%) 이었

고, 동아리 활동은 '있음'이 94명(57.3%), '없음'이 70명(42.7%)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어려움에서는 '전공수업' 97명(59.1%)로 가장 많았으며, '실습'이 30명(18.3%), '교우관계' 20명(12.2%), 기타 '주위시선 등' 17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 수준이 119명(72.6%), '상' 수준이 24명(14.6%), '하' 21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 좋음'이 87명(53.0%) '중간정도' 72명(43.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주도적 학습의 총 점수의 평균은 $3.49 \pm .46$ 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실행($3.53 \pm .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계획($3.47 \pm .58$), 학습평가($3.46 \pm .52$)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총 점수의 평균은 $3.92 \pm .54$ 점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만족($4.14 \pm .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만족($3.87 \pm .62$), 교과만족($3.77 \pm .73$), 관계만족($3.76 \pm .76$)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총 점수의 평균은 $3.82 \pm .53$ 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3.92 \pm .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성($3.82 \pm .61$), 통제성($3.72 \pm .52$)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총 점수의 평균은 $3.95 \pm .63$ 점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적지지($9.97 \pm .6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적지지($3.95 \pm .63$), 정서적지지($3.90 \pm .70$), 물질적지지($3.35 \pm .61$) 순으로 나타났(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수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년($t=-2.20, p=.029$), 대학생활 만족도($F=2.56, p=.020$), 성적($F=3.60, p=.010$), 경제상태($F=3.65, p=.010$)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에서 2학년 $3.57 \pm .45$ 로, 1학년 $3.40 \pm .47$ 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20, p=.029$).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군이 $3.59 \pm .47$ 로 '보통'인 군 $3.46 \pm .46$, '불만족'인 군 $3.30 \pm .4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과 불만족인 군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N=164)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38	23.2
	Female	126	76.8
Grade	1st	79	48.2
	2nd	85	51.8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ied	54	32.9
	Common	96	58.5
	Unsatisfied	14	8.6
Credits	High	37	22.6
	middle	101	61.5
	Low	26	15.9
Extracurricular activities	Yes	94	57.3
	No	70	42.7
School life difficulties	Friendship	20	12.2
	Major classes	97	59.1
	Training	30	18.3
	Etc	17	10.4
Economic status	High	24	14.6
	Middle	119	72.6
	Low	21	12.8
Health state	Good	87	53.0
	Moderate	72	43.9
	Poor	5	3.1
	Total	164	100.0

Table 2.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N=164)

Variables	M±SD	Range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plan	3.47±.58	1-5
	Learning practice	3.53±.59	1-5
	Learning assessment	3.46±.52	1-5
	Total	3.49±.46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3.87±.62	1-5
	Cognitive satisfaction	4.14±.64	1-5
	Subject Satisfaction	3.77±.73	1-5
	Relationship satisfaction	3.76±.76	1-5
Total	3.92±.54		
Ego resilience	Controllability	3.72±.52	1-5
	Positivity	3.82±.61	1-5
	Sociability	3.92±.63	1-5
	Total	3.82±.53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3.90±.70	1-5
	Informational support	3.97±.65	1-5
	Material support	3.35±.61	1-5
	Evaluative support	3.96±.69	1-5
Total	3.95±.63		

성적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 3.62±.46, 성적이 '낮은' 군 3.30±.30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의 성적이 '중간'인 군과 성적이 '낮은' 군 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상태가 '높은' 군 3.56±.60으로, 경제상태가 '낮은' 군 3.23±.45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경제상태가 '높은' 군은 경제상태가 '중간' 이거나 '낮은' 군 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와와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 만족도(F=2.94, p=.033), 성적(F=3.07, p=.03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군은 4.00±.55으로 '불만족'하는 군 3.53±.34보다 전공만족도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이 '보통'과 '불만족'인 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이 4.06±.51로 성적이 '낮은' 군 3.72±.58보다 전공만족도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의 성적이 '중간'인 군과 성적이 '낮은' 군 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에서는 성별(t=-2.03,

Table 3.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164)

Variables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Social support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45±.43		.480	3.84±.57	-1.06	.297	3.67±.54	-2.03	.033	3.75±.49	-1.42	.106
	Female	3.50±.47			3.94±.52			3.87±.52			3.92±.58		
Grade	1st	3.40±.47	-2.20	.029	3.85±.51	-1.58	.114	3.82±.54	.22	.538	3.90±.58	.236	.451
	2nd	3.57±.45			3.99±.55			3.81±.53			3.88±.56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ied ^a	3.59±.47	2.56	.020	4.00±.55	2.94	.033	3.97±.54	6.68	.001	4.08±.65	2.36	.036
	Common ^b	3.46±.46			3.86±.50			3.79±.50			3.91±.59		
	Unsatisfied ^c	3.30±.42			3.53±.34			3.41±.51			3.73±.67		
	Duncan			b,c<a			b,c<a			b,c<a			b,c<a
Credits	High ^a	3.62±.46	3.60	.010	4.06±.51	3.07	.035	3.81±.54	2.12	.112	3.90±.68	2.04	.113
	Middle ^b	3.49±.46			3.92±.52			3.87±.52			4.01±.60		
	Low ^c	3.30±.30			3.72±.58			3.62±.54			3.75±.58		
	Duncan			b,c<a			b,c<a						
Extracurricular activities	Yes	3.47±.47	.28	.429	3.97±.53	1.46	.136	3.90±.52	2.24	.024	3.95±.56	1.92	.046
	No	3.51±.46			3.85±.53			3.71±.54			3.80±.58		
School life difficulties	Friendship ^a	3.34±.50	.85	.465	3.89±.54	1.09	.353	3.62±.38	1.17	.323	3.59±.49	2.64	.051
	Major classes ^b	3.50±.47			3.87±.49			3.84±.53			3.99±.62		
	Training ^c	3.54±.42			4.01±.64			3.81±.58			4.05±.59		
	Etc	3.46±.49			4.07±.56			3.92±.63			3.94±.70		
Economic status	High ^a	3.56±.60	3.65	.013	4.10±.51	1.91	.151	4.00±.66	2.96	.035	4.10±.70	1.40	.233
	Middle ^b	3.52±.42			3.90±.49			3.81±.49			3.95±.60		
	Low ^c	3.23±.45			3.80±.75			3.61±.58			3.78±.67		
	Duncan			c<a,b						b,c<a			
Health state	Good ^a	3.52±.49	1.07	.345	4.00±.55	2.94	.050	3.96±.55	8.12	.001	4.09±.64	6.21	.003
	Moderate ^b	3.45±.43			3.85±.51			3.68±.47			3.82±.57		
	Poor ^c	3.25±.40			3.53±.39			3.32±.36			3.37±.37		
	Duncan						b,c<a			b,c<a			b,c<a

*a,b,c,d: Duncan test

$p=.033$), 대학생활 만족도($F=6.68, p<.001$)와 동아리활동($F=2.24, p=.024$), 경제상태($F=2.96, p=.035$), 건강상태($F=8.1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 $3.87 \pm .52$ 로 남자 $3.67 \pm .54$ 보다 자아탄력성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03, p=.033$).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군은 $3.97 \pm .54$ 로 '불만족'하는 군 $3.41 \pm .51$ 보다 자아탄력성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이 '평균'이나 '불만족'인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활동에서는 '있음' 군이 $3.90 \pm .52$ 로 동아리활동 '없음' 군의 $3.71 \pm .54$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t=2.24, p=.024$).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상태가 '높은' 군이 $4.00 \pm .66$ 로 경제상태가 '낮은' 군 $3.61 \pm .58$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경제상태가 '높은' 군이 경제상태가 '중간' 이거나 '낮은'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3.96 \pm .55$ 로, 건강상태가 '나쁜' 군 $3.32 \pm .36$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F=8.12, p<.001$). 사후분석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건강상태가 '보통' 이거나 '나쁜'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F=2.36, p=.036$)와 건강상태($F=6.21, p=.0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군은 $4.08 \pm .65$ 로 '불만족'하는 군 $3.73 \pm .67$ 보다 사회적지지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이 '평균' 이거나 '불만족'인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4.09 \pm .64$ 로, 건강상태가 '나쁜' 군 $3.37 \pm .37$ 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다($F=6.21, p=.003$). 사후분석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건강상태가 '보통' 이거나 '나쁜'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

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전공만족도와($r=.427, p<.001$), 자아탄력성과($r=.509, p<.001$), 사회적지지와($r=.482,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r=.538, p<.001$), 사회적지지와($r=.473, p<.0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사회적지지($r=.624,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성별,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경제 상태를 Dummy변수로 전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의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을 확인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1.953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 Limits)는 .839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53-2.958으로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N=164)

Variables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r	r	r
Self-directed learning	1		
Major Satisfaction	.427($p<.001$)	1	
Ego resilience	.509($p<.001$)	.538($p<.001$)	1
Social support	.482($p<.001$)	.473($p<.001$)	.624($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self-directed learning

(N=164)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49.92	11.00		4.53	.000
Gender	-3.41	2.77	-.097	-1.57	.117
Grade(Low)	5.23	2.47	.238	2.11	.036
Grade(Middle)	-3.80	3.36	-.101	-1.15	.251
Satisfaction on college life(Common)	-1.65	1.27	-.043	-.622	.535
Satisfaction on college life(Unsatisfied)	-.278	4.96	-.004	.056	.855
Credits	-5.03	4.11	-.097	-1.22	.013
Economic status	-6.33	4.74	-.112	-.996	.184
Major satisfaction	.250	.157	.128	1.59	.091
Ego resilience	.345	.132	.264	2.61	.010
Social support/	.385	.103	.320	3.71	.001

R²=.483, Adj R²=.446, p<.001

* Dummy variable: (Gender reference group: Male, Grade reference group: 1,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reference group: Satisfaction, Credits reference group: High, Economic status reference group: High)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상 값을 확인하기 위한 Cook's D 검정을 수행한 결과,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적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년, 성적,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나타났으며, 학년의 경우 2학년이 1학년 보다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38, p=.036$), 성적은 성적이 낮은 경우가 성적이 높은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97, p=.013$). 전공만족도($\beta=.128, p=.091$), 자아탄력성($\beta=.264, p=.010$), 사회적지지($\beta=.320, p=.001$)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예측되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1.00, p<.001$),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정된 R²는 44.6% 설명하였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49점으로 나타났다. Ha[25]

의 연구에서는 평균 3.39점, Kim과 Kim의 연구[26]에서는 3.44점으로 본 연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특히, Kim과 Kim[26]의 대상자는 2학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맞춤형 학습 전략을 수립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경제상태 등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에 적극적인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았다는 선행연구[19]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참여와 학습이 요구되며,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적절한 대학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27]의 연구에서는 3.66점, 신입생 대상으로 한 Cho[28]의 3.6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Oh[29]의 연구에서도 학년에 따라, 학업성적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익숙하고 대학생활 및 전공수업에 대한 경험이 미흡한 1학년보다는 전공수업

등 학사일정에 경험이 있는 2학년에서 대학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전공교과에 인식과 이해를 충분히 높여주고, 특히, 1학년 때부터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적용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3.82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연구한 Heo[30]의 3.7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면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와 동아리 활동, 경제상태,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이나 만족도가 높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았다는 Park 등[3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은 간호학과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 [32] 협동 활동 등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 배려하는 교육 환경 및 노력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 능력을 높여 자아탄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15], 개인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33].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지지 평균 점수는 3.95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로 연구한 Ahn 등[19]의 연구에서는 3.45점 나타나 본 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를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와 동아리 활동, 건강상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에서 타인의 지지와 활동이 높을수록 수업 만족도나 학업적응도가 높으며[34], 긍정적인 친밀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나[35]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밀감 형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다는[36,3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4.6%였다. 이러한 결과는 Ann 등 [19]의 77.2%, Jeong[38]의 76.9%보다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영향요인 변수들의 차이와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차이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았다는 Kim 등[2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1,2학년 학생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자원이나 학습전략이 부족한 상태로, 저학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친구나 주변에서의 지지를 높이는 방법과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부 지역의 간호학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 등을 추가 변수로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예측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련성에서는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경제상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의 상관관계에서는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여 자신감을 키워주면서 사회적지지를 위한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학년 별 차별화된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학습전략

을 촉진시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학 초기 단계인 간호대학생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학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지원의 필요함을 검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1] K. S. Baik,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2 No.1, pp.77-95, Jun. 2011. Available From: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078567>
- [2]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in response to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exploring strategies for building a customized education system,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RR 2014-11. Available From: <https://www.kedi.re.kr/khome/main/webhome/Home.do>
- [3] I. S. Choi, E. J. Joo,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Korea Adolescent Society*, Vol.23, No.6, pp.145-173, Jun.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06.23.6.145>
- [4] Y. H. Choi, M. J. Cha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ajor satisfaction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19, No.10, pp.479-491, Oct. 2019.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0.041>
- [5] M. H. Kang,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experience in online lear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10, pp.521-533, Oct.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0.521>
- [6] J. S. Jung,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53-61, Apr. 2012.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2.18.1.053>
- [7] M. Y. Moon,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attitude and learning styl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4, pp.665-675, Apr. 2019.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4.063>
- [8] M. K. Cho, M. Y. Kim,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eacher-student inter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ore competency, learner motivation, and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161-170, Mar.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3.161>
- [9]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0.
- [10]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pp.417-426, Dec.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 [11] B. R. Choi, H. S. M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efficacy, adjustment to college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undergraduates",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Association*, Vol.18, No.22, 939-955, Nov. 2018.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8.18.22.939>
- [12]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Available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Adam-Kremen/publication/14563448>
- [13] H. K. Chang, "Influencing factors on midlife crisi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30, No.1, pp.98-105, Feb. 2018. DOI: <https://doi.org/10.7475/kjan.2018.30.1.98>
- [14] J. A. Cho, J. S.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587-595, Apr.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4.587>
- [15] X. Dong, M. A. Simon, "Gender variations in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risk of elder mistreatment in a Chinese community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29, No.6, pp.720-739, 2010. DOI: <https://doi.org/10.1177/0733464809348057>
- [16] K. A. Kang, H. Y. Cho,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210-218, Mar.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3.210>
- [17] J. N. Jeong, "The impacts of resilience,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an and sophomore yea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2, pp.385-394, Feb.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2.385>
- [18] Y. J. Oh, E. J. Lee, M. S. Park, E. M. Le, "The effect

-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2, pp.787-797, Apr. 2021.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2.787>
- [19] M. N. Ahn, M. K. Park,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 leadership, social support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2 pp. 246-255, Dec.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2.246>
- [20] Y. J. Kim, H. N. Yoo,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261-270, Oct.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0.261>
- [21] S. J. Lee, Y. K. Chang, H. O. Lee, K. O.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22]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4.
- [23] J. W. Park, *A work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85.
- [24] W. Y. Shin, M. G. Kim, J. 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Korean Youth Studies*, Vol.20, No.4, pp. 105-131, Aug. 2009.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O01393400>
- [25] J. Y. Ha, "Learning style, learning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355-364, Dec.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355>
- [26] Y. A. Kim, Y. H. Kim,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introductory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9, pp.459-471, Sep. 2016.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6.6.9.043>
- [27] M. R. Lee, M.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6, pp.197-208, Jun.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6.197>
- [28]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5, pp.2937-2945, May.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5.2937>
- [29]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873-884, Oct.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873>
- [30] S. Y. Heo, *The relationship among resilience, career in decision and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2.
- [31] S. H. Park, S. H. Han,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517-526, Aug.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517>
- [32] S. S. Baek, H. Y. Cho, "Influence of empathy, anxie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5, pp.2841-2852, Oct. 2017.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5.2841>
- [33] J. E. Jeong, C. Y. Jyung, "The caus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7, No.1, pp.79-96, Mar. 2015.
DOI: <https://doi.org/10.23840/agehrd.2015.47.1.79>
- [34] J. H. Ki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ejae University, 2012.
- [35] S. A. Bae, S. Y. Su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 pp.859-877, Jan.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2.859>
- [36] Y. H. Jeon, J. W. Choi, M. S. Kim,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Sociology*, Vol.9, No.5, pp.437-449, May. 2019.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5.040>
- [37] P. A. Creed, T. Fallon, M. Hoo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person and situation variables, and career concerns in young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4, pp.219-229, 2009.
- [38] M. H. Jeong, "Effects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9 pp.302-314, Sep.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9.302>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감염관리